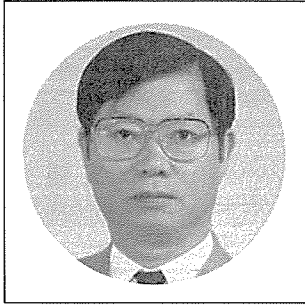


## 大同團結하는

## 우리 科學技術人



金 虎 起  
〈國立中央科學館長〉

「이곳의 불쌍한 사람들에게엔 낚싯대를 들 수 있는 힘조차 남아 있지 않다. 이들에게는 음식을 주어 우선 餓死에서 구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다」 이는 인도의 빈민들에게 고기잡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고 왜 자꾸 고기만 줌으로써 자립할 수 있는 길을 막느냐는 비판에 대해서 테레사修女가 대답한 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임금인상과 기술력 낙후로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저하가 크게 걱정되고 있어서, 일각에서는 애플주사 투입식의 단기적인 비상조치까지 주장하고 있다. 우리 경제는 과연 애플주사가 필요할 만큼 침몰 직전상태에 있는 것일까. 인도의 빈민처럼 우선 살려 놓는데 급급하여 임금문제 해결을 위하여는 민주화를 희생하고 당장의 기업적 문제를 위해 장기적 국가과학기술의 기틀마저 흔들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일이 급하다고 느껴질 때일수록 깊이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제는 지금 흔들리는 감은 있지만 가라앉을 만큼 허약한 것이 아니다. 이제는 기업 자체에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어 몇몇 대기업의 경우 연간 연구개발 투자액이 회사당 수천억원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 전체의 정부·공공부문 연구개발사업비 연

간총액이 5천억원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아쉽기 그지없는 일이다.

한나라 과학기술의 주축이 되어야 하는 대학의 기초연구환경이 선진국은 말할것도 없고 대만에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이다. 그동안 「三泐의好況」으로 貿易黑字까지 기록했던 우리 경제가 고기잡이를 배우기 전에 고기만 배부르게 먹었던 것이 아닌가 정말로 반성해야 한다.

수천억씩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회사들의 문제를 전적으로 과학기술계의 잘못으로 미루기 전에 진정한 産·學·研의 紐帶強化를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무슨 케네디大統領의 취임사 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 과학기술인들이 하고 싶은 말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과학기술이 경제를 위해 무엇을 했나 묻기 전에 경제가 과학기술을 위해 무엇을 했나 물어보라.」

과학기술이 생산성에 효과적으로 동원되어 오지 못하였다면 모두가 심기일전하여 힘을 합쳐야 할 때이다.

우리 과학기술계도 이제 그 Solidarity를 각계에 보여주어야 하겠다. 외부의 비판에 대하여 겸

허한 자세로 스스로 반성할 것은 반성하되, 그동안 모든 어려운 환경아래서도 묵묵히 일해온 동료들의 업적을 서로 격려하며 널리 알려야 한다. 그리하여 과학기술을 경제의 부속물만으로 경시하는 풍조가 사라지도록 하여야 한다. 과학기술계의 평가에 있어 「경제의 자(尺)」가 물론 매우 중요한 것은 틀림없지만 문화·교육·국민생활 등 여러분야에 걸친 간접적인 효과의 측면을 결코 간과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80년대 우리의 한정된 연구개발능력을 우리 여건에 맞는 특정분야에 효율적으로 결집, 동원시키는 産·學·研 협동의 국가연구개발체제로서 정부의 특정연구개발 사업이 수행되어 왔다. 이는 신흥공업국가군의 경쟁압력과 첨단산업분야에서 선진국의 기술 보존장벽이 높아짐에 따라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는 미래 첨단기술개발에의 과감한 도전과 우리 여건에 적합한 기술개발전략의 전개가 필요하게 됨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의 특정연구개발 사업은 국산화, 수입대체 등의 직접적인 성과도 팔목할 만하였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에 기술개발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이 나라 과학기술의 기반을 공고히 다져놓은 간접적인 효과라고 하겠다. 각계각층에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 않는가. 또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가고 있지 않은가. 아직도 정부출연연구기관이 특정연구개발 사업의 주축을 이루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과학기술 수준의 문제점인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대학·기업 그리고 국책연구기관이 저마다의 역할을 다하며 조화롭게 협력을 펼쳐 나갈 수 있을 때에 선진과학기술사회를 이룩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여건은 대학교수 1인당 과중한 강의부담, 연구비 부족 등으로 대학의 연구환경이 열악하고, 기업의 기술수요 유형을 엷은 기술공급으로는 충분히 대처하기 힘든 상태에 있다. 지난 80년대 일관성 있는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으로 그 연구내용에 있어 기초적인 성격이 커가고 있다. 대학이 이에 참여해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

라 하겠다. 역설적인 얘기일지 몰라도 특정연구사업의 성공적 추진은 궁극적으로 선진국에서 처럼 국내 연구개발의 주축이 대학에 뿌리박힐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産·學·研의 실질적인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출연기관 중심으로 모처럼 살아나는 불씨가 주관부서의 불필요한 간섭이나 노사분규 등으로 꺼지는 일이 없도록 특정연구사업이 일관성과 융통성을 지니며 확대되어 나갈 수 있도록 産·學·研이 힘을 합쳐 나가야 한다. 특정연구사업의 일부분으로서 처음부터 기업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산업기술을 정부·민간 공동으로 수행해 왔기 때문에 이를 소위 “공급지향적”인 성격으로 단정하는 것은 무리다. 구태여 출연연구소 소관문제를 과학기술자의 사기를 저하시킬 필요는 없다.

정부의 각 부처가 또 산업계, 학계가 모두 국가적인 연구사업발전에 동참하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과학기술자란 일관성과 독립성의 보장없이 창의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존재들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연구소나 연구사업은 집짓기와 달라서 집짓는 사람 따로 있고 들어와 사는 사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연구활동이란 하나의 문화활동이다. 그 나름대로의 벽돌을 쌓아야 미래에 대비한 창의성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과학기술이 경제발전에 가장 중요한 요소임이 틀림없지만, 이제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 시작하는 특정연구사업에 대하여 선진국에 맞는 자를 들고 지나치게 차가운 시선을 던질때 우리의 국제경쟁력 앞날은 밝지 못할 것이다. 과학기술에 “왕도”는 없다. 단지 후발자로서 발전의 속도를 크게 하는 길을 찾아야 할 뿐이다.

경제대국으로 급성장한 일본사람들도 급하면 돌아가라는 속담을 즐겨 말한다. 성급한 조치보다는 나라에 여유가 있는대로 대학의 연구여건개선, 특정연구사업의 확대 등 과학기술투자가 확대되는 길이 결국은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하여는 우리 과학기술인의 대동단결과 배전의 노력이 절실히 요망된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항상 새로운 일을 개척하고 열심히 매진하는 무엇을 보여줄 때인 것이다.